**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특별 포럼**

**‘다시,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’ 개최!**

**부산국제영화제 지석영화연구소가 오는 9월 18일(목)부터 21일(일)까지, 영상산업센터에서 나흘간 ‘포럼 비프(Forum BIFF)’를 개최한다.**

**글로벌 미디어 격변기, 아시아영화의 오늘과 내일을 말하다**

**영화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시네마 트렌드 논의의 장!**

부산국제영화제 30회를 맞아 개최되는 이번 특별 포럼은 **‘다시,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’**라는 화두 아래,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속에서 아시아영화가 직면한 현실과 미래를 다각도로 조망한다. 이번 포럼은 산업, 정책, 비평, 기술,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, 아시아 주요국의 감독, 제작자, 평론가, 연구자 등이 대거 참여해 오늘날 아시아영화계의 흐름과 당면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.

**OTT와 국제공동제작 - 아시아영화의 두 갈래 이슈를 진단하다**

올해 포럼이 주목한 키워드는 ‘OTT’와 ‘국제공동제작’이다. 세션 **‘OTT는 아시아영화 산업을 살리는가, 삼키는가’**는 아시아 각국의 영화 산업 종사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OTT가 영화 기획과 산업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진단한다. 또 다른 핵심 세션 **‘아시아영화, 국제공동제작의 새 챕터를 열다’**는 아시아영화인들이 국제 협업을 통해 어떤 미학과 산업 전략을 구사해왔는지 최근 경향을 살펴본다.

**30년을 돌아보다 - 한국영화의 성장과 그림자**

한국영화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세션도 눈길을 끈다. **‘1996 플래시백 : 한국영화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’**에서는 한국영화산업이 지난 30년간 이룬 비약적 성장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위기와 미학적 한계를 점검한다. 또 하나의 세션 **‘한국독립영화는 어떤 꿈을 꾸는가’**는 독립영화의 성과와 생존 전략,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한다.

**기술, 교육, 연대 - 아시아영화의 미래를 향한 확장된 질문**

부산국제영화제는 동서대학교, 한국영상자료원,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,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, 영화제정책모임과 함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. 이들 세션은 영화 기술의 변화, 아시아영화교육의 미래, 그리고 한국영화계 내부의 연대를 통한 위기 극복 전략 등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.

이번 포럼 비프는 영화를 둘러싼 트렌디한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며, 아시아영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.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영화인과 관객들에게 변화의 시대 속 영화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▶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| 9월 17일(수) - 9월 26일(금)

▶ 제20회 아시아콘텐츠&필름마켓 | 9월 20일(토) - 9월 23일(화)